

## 그리고 신발을 위한 냉장고

평소보다 두어 시간 늦게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했을 때는 어둠이 두텁게 깔린 후였다.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역한 냄새가 차 안까지 파고들었고, 그 때문인지 약간 어지럼이 일었다. 친절할 말투의 내비게이션이 나를 악취 속으로 밀어 넣으려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안내 종료와 함께 냄새는 더 지독해졌다.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는 33-3번지의 파란 대문을 열었다. 군데군데 녹슬고 철이 벗겨진 문이 내는 끼이익 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집과 인터넷 전단지방이 늦가을 거리에 수북이 쌓인 낙엽마냥 둥구는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란 문은 모조리 달아뒀는데도 먼지는 켜켜이 쌓여 그간의 시간을 증명했다. 옆선의 실밥이 풀린 누런 운동화와 굽 바깥쪽만 심하게 닳은 검은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냄새와 먼지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릴 때 뒤따라오던 차들을 앞세울 게 아니라 어떻게든 유턴을 해야 했다.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빛만 있을 거라는 불안과 달리 유산목록에는 낡은 집의 전세보증금과 얼마간의 돈이 든 통장이 있었다. 집주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정리를 차일피일 미뤘던 덕에 전기와 가스 요금은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어서 잠시 머무는 데 어려움은 없을 터였다.

거실에 가져온 것들을 펼쳐 놓았다. 짐이라야 홈쇼핑에서 주문한 화물용과 기내용 캐리어 하나씩과 동네 마트에서 얻은 라면 상자 두 개뿐이었다. 거실에 있던 신문물치와 빗자루는 보일러실에 처박아 뒀고, 소파 위에 놓여 있던 겨드랑이 부분이 진하게 변색된 감색 점퍼와 손목 언저리가 닳은 회색 작업복은 비닐봉지에 넣어 다락으로 던져 버렸다. 거실 서랍장을 쓸 마음이 들지 않아 티셔츠와 속옷은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와 함께 캐리어에 그대로 두었다. 혹시나 해서 챙긴 두툼한 침낭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미처 적히지는 못했으나 유산 목록에는 기괴한데다가 거대하기까지 한 악취도 있었다. 정오의 명백한 날빛 아래서 밤새 잠을 설치게 만든 냄새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떨어트렸다. 편의점에서 산 2리터짜리 생수병이 발등을 찍었지만 아파할 틈도 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구는 일회용 접시와 나무젓가락, 맥주 캔을 챙겨 집으로 들어갔다.

냄새의 근원지는 옆 골목 끝집이자 아버지 집과 맞닿은 뒷집, 32-3번지였다. 오래된 동네에 있을 법한 고물상일까. 불투명한 식용유 통과 빛 바른 콜라 캔, 테이프용 카세트와 브라운관 텔레비전 들은 막무가내로 쌓여 옥상에 있는 나와 눈높이를 같이 했고, 이 분류 없음은 고물상이란 명칭을 거부하고 있었다. 때가 배여 갈레와 다를 바 없는 티셔츠를 보고 있자니 집주인의 단호함이 이해됐고, 꼬질꼬질한 곰 인형의 반 토막 난 왼쪽 눈과 마주쳤을 때 이곳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쓰레기 동산을 지척에 둔 집의 주소로 확정일자 받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다.

머리카락이 뒤엉킨 청소용 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제 화장실 선반에서 봤던 누르께해진 칫솔들이 떠올랐다. 체조선수의 허리처럼 모가 흰 칫솔이 닳았을 아버지의 이는 절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제와 그를 떠올리면 등성등성 남은 이가 그려지면서 동굴에 갇힌 기분이 든다. 한 줄기 빛도 허락되지 않은

동굴을 더듬으며 걷다 보면 종유석이 만져졌고, 석순에 걸려 넘어지곤 했다. 석주를 보기도 했는데 어쩐지 그것들이 창살처럼 느껴져 숨이 턱 막히기도 했다. 누르고 덕지덕지 치석이 낀 치아, 기다랗고 앙상한 뿌리를 드러낸 치아, 하지만 임플란트를 시술하기에 우리의 통장은 너무 가벼웠다.

평생 발길을 끊었던 광주로 내려온 아버지는 귀향 반 년 만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얼마간의 투병 끝에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의 시간을 제외하고 쓰레기동산을 머리맡에 두고 생의 마지막을 홀로 보냈으니 명백하게 쓸쓸한 엔딩이었다. 비와 바람과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바라고 칠이 벗겨진 트로피를 향해 캔을 던졌다. 캔은 묵직한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을 쏟아내며 아래로 굴러갔다. 더 있다가는 내가 냄새인지 냄새가 나인지 구별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잘 씻고 옷을 자주 갈아입는다한들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냄새는 곧 나의 체취가 될 테지만 편의점에 가는 것과 실업 급여 수령을 위해 외출할 일을 제외하면 밖에 나갈 일도, 누군 만날 일도 없었다. 현실을 인지하는 순간, 바빠 뛰던 심장이 진정됐고 머릿속은 차분해졌다.

옥상에서 내려와 작은방의 문을 열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나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과거의 나는 일부 남아 그와 함께 했다.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힌 세계명작소설 전집에서 마른 곰팡이 냄새가 났다. 열일곱 살 터울의 큰집 누나에게 물려받았으니 사십 년은 됐을 책들이었다. 『암굴왕』의 신밧드,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좋아했지만 벽지보다 더 누런 책을 펼치고 싶진 않았다. 108명의 사나이를 찾는 추억여행을 떠나기에는 책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수호지』는 손대자마자 바스락거리면서 먼지로 사라질지도 몰랐다. 『해저 이만 리』는 주인공도, 줄거리도 가물가물했으나 모두 잘 살고 있을 거다. 주인공이 망하는 동화는 어디에도 없으니 모로 가나 결국 해피엔딩 사이에서 낡은 책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에 걸릴지도 모를 나나 걱정해야 했다. 구석에선 연두색 끈으로 묶인 『수학의 정석』과 『개념원리』, 『블랙박스 파일』이 버티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난한 이유가 배우지 못함에 있다고 믿었으나 그 논리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나의 가난을 설명할 수 없었다.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수거차와 다름 바 없는 방을 나와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불을 켜는데도 방은 음침한 얼굴로 나를 반겼다. 8시 16분, 12시 11분, 2시 13분, 각자의 순간에 멈춰 있는 시계들을 스쳐자개보다 공보 같은 자국이 더 많은 8자 장롱 앞에 멈춰 섰다. 배가 불룩하게 튀어 나온 것처럼 보이는 문은 지난 시간을 겨우 틀어막고 있는 듯 했다. 아버지는 일인용 술상을 차려 장롱을 마주보고 소주병을 비우곤 했다. 언젠가 한밤중 불이야, 소리에 잠에 깬 그는 장롱부터 열었다. 내가 뒤늦게 눈을 비비며 대문 밖으로 달려 나갔을 때 아버지는 보자기를 끌어안은 채로 길가에 쭈그리고 있었다. 장롱 손잡이를 잡았지만 차마 당길 수가 없었다. 이제야 늦가을의 냉랭함과 다른 한기가 느껴졌다. 집을 지탱하는 것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아닌 그곳에 사는 인간의 온기와 이야기라면, 아버지의 집은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다.

아침부터 골목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가뜩이나 좁은 진입로는 5톤 트럭과 승용차들로 인해 지나갈 수가 없었다. 단지 허기졌고 그저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만 사면되는데 나는 졸지에 사람들 틈에 끼어 버렸다. ‘공무’가 프린트된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은 이들은 심각한 얼굴로 숙덕거렸다. 무릎께가 튀어 나온 추리닝과 알록달록한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샷대질하며 화를 내기도 했고, 반색하는 눈으로 조끼들을 보기도 했다.

컹컹 찌르는 쇠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32-3번지 쓰레기동산을 향했다.

“이놈들아. 이게 다 돈이다, 돈.”

체구가 작은 백발의 노파가 트로피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다. 굵은 허리 탓에 더 작게 보였는데 외모와는 달리 목소리는 우렁찼다.

“어르신, 저희는 구청에서 나왔고요.”

조끼 하나가 애원하는 얼굴로, 하지만 애써 분노를 참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이 씨글놈들이 내 돈을 빼사갈라 하요, 아따 세상천지 호로자식들을 봤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조끼들은 서로 마루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휴일 수당이나 챙기고 들어가면 되는 일 아닌가. 32-3이 말 한마디에 움직일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쓰레기동산 따위는 없었을 거였다. 하지만 한쪽으로 기우는 전쟁이 될 거란 예상과 달리 이내 32-3의 눈빛이 달라졌다. 32-3이 훌쩍거리며 말했다.

“선상님들, 우리 남편 어디 간지 안다요? 금방 갔다 온다고 했는디 날이 바뀌도록 안 돌아와쁘디, 오메 미치겜네.” 모퉁이를 교체한 듯 32-3의 태도는 애원에서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너거덜이 내 서방 데려갔지야? 어따 숨겨놨단가?”

32-3은 더미에서 은색 파이프를 뽑아들었다. 행거의 일부였던 듯 다른 봉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달고 있는 파이프를 휘두를 때마다 작고 굵은 몸이 휘청거렸다. 누군가 그제 비가 제법 내렸다는 말을 했고, 골목에 긴장이 감돌았다.

“할머니, 자꾸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하셔야지요.” 조끼 하나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저희 사정도 이해해주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 날아왔다. 맑고 투명한 고동색 파편을 만들어낸 것은 사과였다. “저 할매 때때 미친다, 미쳐.” “아이고, 이 동네를 떠나야제.” “아따, 집이 나가야 이사를 갈 거 아니요.” “안 그래도 볼 거 없는 동네 집값만 떨어지고 있고만 원 대책을 마련해 줘야제.” 대략 30번지에서 35번지까지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쏟아냈다.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광풍과는 거리가 먼 곳, 오래된 주택가에 사는 이들이 달고 있는 번지는 어떤 지 수감 번호처럼 느껴졌다. 재개발은커녕 팔리지도 않을 낡은 골목길에서 형기가 끝나지 않을 수감 중인 그들은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을 32-3번지로 여기고 있었다. 모두 맞다 할 수 없었으나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쓰레기로 가득한 집은 하나인데 동네의 모든 집이 같은 취급을 당하는 중이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도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 있었다. 모두가 떠나려는 동네를 찾아온 것은 당장 살 곳이 없어서였다. 권고사직도 버거운데 거기에 나는 하우스 푸어의 푸어였다. 푸어 하나가 쓰러지면 줄줄이 쓰러지는 도미노 세상에서 연쇄는 흔해빠진 결말이었다. 사과는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투척되어 썩은 속을 드러냈다. 대개는 피했지만 운이 사나운 조끼도 있었다, 씨팔, 좃갈네. 욕은 피하거나 맞은 조끼 모두의 입에서 나왔다.

조끼들은 서둘러 철수했고 모여 있던 동네사람들도 사라졌다. 골목엔 오직 32-3만이 흉물스런 트로피와 나란히 서 있었다. 나는 모퉁이 전봇대에 몸을 감추고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도 발 디디지 못한 완벽한 방어였음에도 32-3의 얼굴에선 승리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과 잔해 주위를 신나게 날던 나방 파리 한 마리가 티셔츠에 남은 얼룩 위에 앉았다. 카키색 면과 랙스가 만나면 탁한 주황색이 된다. 나방

파리를 쫓아내려면 수채구멍을 치아염소나트륨, 그러니까 락스 같은 살균제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물곰팡이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다. 화장실의 습기로 태어나는 물곰팡이는 나방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었다. 온 힘을 다해 닦아내면 물곰팡이가 사라질 것이고 배고픈 나방파리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며칠째 실패만 거듭했다. 모가 만개한 칫솔로 타일과 타일 사이에 박힌 검은 곰팡이를 긁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락스를 통째로 들이붓는 것뿐이었고, 덕분에 어제 종일 눈이 시렸고 주황색 얼룩을 얻었다. 나는 나방파리를 쫓으며 정말이지 농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심호흡 끝에 장롱을 열었다. 낮은 실적을 받아 들고 목을 맨 영업 사원처럼 흔들리는 넥타이를 제외하곤 눈에 띄는 건 없었다. 낡은 검은색 코트와 꾸깃꾸깃한 남색 패딩 사이를 뒤졌지만 장롱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구두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실이란 말인가.

“구두 좀 가져 와바야.” 아버지는 불안간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게 속삭였다. “아따, 냉장고에 있당게 그란다.” 그러더니 허리를 꼴끗하게 세우고 앉아 형형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병원에 도착한 후로 누워만 계셨던 분이였다. 구두 모양 빵이 냉장고에 있어요?, 하고 되물었다. 반듯함과 빛남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확인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금세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나 역시 구두와 냉장고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하지만 아버지가 맞았다. 냉장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분홍 보자기는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고 묻는 것만 같았다. 네 귀로 육인 매듭은 누가 열어볼까 애지중지 묶었는지 틈에 젓가락을 꽂고 이리저리 흔든 후에야 풀 수 있었다. 드디어 등장한 갈색 구두는 여전히 한 짝뿐이었다. 몇 번 신지 않아 두세 개의 선만 선명한 구두는 보자기와 장롱, 그리고 냉장고의 비호를 받았음에도 시간을 역행할 수 없었던지 좀 낡아 보였다.

구두에 왼발을 집어넣었다. 내게는 아직도 약지 반 마디만큼 컸다. 아버지가 나나 작은 키는 아니지만 발은 작은 편이었는데 둘 중 누가 신어도 맞지 않는 사이즈의 구두였다. 한 짝으로 남은 구두는 아버지 품에 들어온 이후로 제 용도를 다하지 못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애지중지 여기는 구두 한 짝과,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마음의 일부를 어딘가에 두고 온 듯 굴 때마다 엄마는 이 모든 게 저놈의 구두 탓이라 말하곤 했다.

그랬다, 아버지의 사랑은 구두 한 짝이었고, 그로 인해 구두는 보통의 신발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게다가 구두는 남성용이었고 그게 엄마를 더 참을 수 없게 했다. 엄마는, 차마 입 밖에 꺼내지는 못했지만 나야, 그놈이야?, 라고 묻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나이를 먹고 정보의 폭이 넓어진 나는 이제 그녀가 세운 전제가 틀렸다고 확신한다. 가장 적합한 질문은 ‘나야, 구두야?’일수도 있다. 특정 사물에 성적 욕망이 생길 수도 있음을 일찍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엄마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

‘나야, 그놈이야?’를 넘어섰던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에게 졌다. 기억하는 한 가장 극렬했던 다툼이 벌어졌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잠잠해졌다.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를 침범침범 뛰어 다니며 나는 찌그러진 프라이팬과 찢어진 베개보를 어루만졌다. 몇 밤 자고 일어나면 다시 시작되었는지? 너희처럼 나도 두려워. 그러나 휴전은 명백한 판단 착오였다. 며칠 후 그들은 법원에 갔다. 고요는 정전의 결과였다.

엄마 소식을 들은 건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나다, 승환이 형. 기억나지? ……이모가, 네 엄마 말이야.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 멀리 푸른 파도가 일렁였고, 요트 한 대가 유유히 바다를 가로 질렀다. 부고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고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젊음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엄마는 이십 년 전 버전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 나 역시 열 살짜리 버전일 테고.

지금 여기 함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나를 지탱하는 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핏줄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여자 친구였다. 엄마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찬성할 수는 없었다. 나를 방치했다는 데에 있어서 그녀 역시 가해자였다. 애도는 한 짝으로 남은 구두의 세계에 방치된 어린 나를 위한 것이어야 했다. 때마침 밀려온 파도가 미약하게 남은 천륜과 당위성마저 데려갔다.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리턴 날짜 변경은 수고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옥상에 서자 쌀쌀한 밤바람을 타고 온 괴괴한 냄새가 나를 휘감았다. 한 짝만 남아 도통 쓸데도 없는 주제에 너무 많은 것들을 환기시켰다. 호흡을 멈추고 트로피를 향해 구두를 던졌다. 유아용 변기에 부딪힌 구두는 쓰레기 속으로 사라졌다.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하던 33-1번지 여자는 이제 아주 오래된 이웃인양 굴었다.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소심해지고 걱정이 앞서는데, 나에게 나이는 용기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어째서 누군가에겐 나이가 들수록 낮선 이에게 말 건네는 일이 쉬워질까.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33-1이 나와 제육볶음을 슬쩍 쳐다봤다.

“총각은 하는 일이 뭐당가요?”

“아…… 컴, 컴퓨터 관련 일을 합니다.”

취업사이트에서 원서 하나를 보내고 나왔으니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다.

“근디 왜 맨날 집에 있당가? 취업이 안된대요?”

“프리랜서라서요. 집에서 일…….”

“프리 뭐? ……하긴 어떻게든 살아야제. 질긴 게 목심이라고 저 할마시도 산디.”

청년 실업과 나를 연결시킨 건 틀리진 않지만 내 입장에서는 동네를 장악한 냄새보다 불쾌한 말이었다. 33-1번지는 묻지도 않고는 내 앞에 앉아서 후식으로 먹으려던 꿀을 스스럼없이 갸다.

“저 집이 엄청 잘 살았당게. 총장로 가든백화점 있단가, 총각도 알제? 가든백화점, 고거시 이름이 뭐 시다냐, 아따 나이가 드니께 생각이 잘 만나부러야. 가만있어 봐라, 화니, 화니백화점. 지금에야 서울서 내려온 백화점들에 밀렸는디 그때만 해도 여기서 최고였제. 그렇게 창원모일이랑 총장로파출소 맞은편에 있는 농이 화니니께 더 아래로 내려와서 금남로 가까이 있던 것이 가든이 맞제. 아따 근디 먼놈의 꿀이 이라고 시대요? 편의점은 죄다 비싸게 판당서 맛없는 것만 갸다 논갑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잘 사다 먹응게. 아무튼 가든이 생기기 전이긴 한디, 원래 그 짝이 광주 시내서 제일 변화가였지 않소, 고 농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동복 매장을 할 정도는 잘 나갔제. 난리 나기 전까지는 참말로 좋았서라. 아따, 탱크가 밀고 들어왔잖소. 찢어 죽일 농이 군인들 죄다 여기로 보내고, 그놈들이 여기저기 총질해감서 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여븐지 아요? 저 집 내외가 가게에 시위대도 숨겨주고 밥도 맥이고 그랬는디, 남편이 도청에 주먹밥 갸다 주다가 총에 맞아븐거여. 신발 한 짝만 돌아왔음 게 난리가 났제.”

아니, 신발이라니. 게다가 한 짝만?

“혹시 구두였나요? 오른쪽은 아니었고요?”

“오메, 참말로 이상한 걸 몰네. 고거시 구둔지 운동환지 어찌 알 것소? 왼짝인지 오른짝인지도 모르제. 요거는 좀 달고만, 식사 다하고 이거 좀 드셔보소. 굴은 조막만한 게 맛있당게. 아이고야, 참말로 많이도 죽었어야. 초상 안 치른 집이 없었당게. 근디 총을 맞아서 쓰러지는 걸 본 사람은 있는데 시체가 안 나왔어야. 그 농들이 어따가 물어본거제. 말도 마랑게. 그때 시체 못 찾은 집이 한둘이 아니었당게요. 그란디, 이 여자가 애를 뱃던 거여. 젊은 여자 혼자 시어매 모시고 어린 딸래미 키우고 참말로 힘들었서라. 아, 근디 언제부터가 저 집에 동네 잡동사니가 쌓이는 거여. 죽은 남편 물건이랬다가, 남편 오면 고깃국 끓여준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남편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제. 근디 하나만 그래도 천불이 날 판에 시어매도 우리 아들 것이네 주워오고, 딸래미도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다 집어 오고 삼대가 미쳐버는거여.” 33-1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몇 년 전부터 할매네 할매가 안 보인당게.”

“……요양원에 가셨나보죠?”

“아따매 총각, 웃기는 소리도 할 줄 아요?” 여자는 다시 컵가에 소근 거렸다. “쓰레기 아래 있을 거여. 다들 그렇게 말해.”

“젊은 여자도 안 보이던데…….”

“재작년에 소주병 줍다가 차에 치였서라. 30원이나, 40원이나, 소주 한 병에 얼마다요? 그거 땀시 저 세상으로 가버렸제. 차라리 잘 됐제, 저리 사는 게 사는 거 것소?”

32-3번지에 대한 이야기는 망에 담긴 굴 열 개가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끝이 났다. 굴은 맛도 못 봤지만 얻은 게 있었다. 아버지의 엔딩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 쓰레기에 묻힌 시체까지 마지막을 함께 했으니 음산함 가득한 끝이었다.

그날 밤 침낭에 앉아 국민 어머니가 웃고 있는 도시락에서 불고기를 집는데 구두가 떠올랐다. 달고 짠 불고기를 씹으며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구두 생각은 더 간절해졌다.

쿵쿵. 쿵쿵.

아, 이게 뭐지.

잠깐, 아니 언제부터가 집, 아니 동네의 냄새, 이젠 자괴감마저 불러일으키는 이 냄새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알아채지 못할 때는 한없이 가볍던 익숙함이 어마어마한 무게로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애써 불쾌해지려 애썼고, 그러다 혀를 깨물었고, 결국 비릿한 피가 불고기 양념 사이로 퍼지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카오스 곁에는 코스모스가 있는 법, 32-3의 세계는 혼란스러움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32-3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 정도 지켜 본 결과, 나는 32-3의 외출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때론 오후 5시 길을 나서고 두어 시간, 수거물이 마땅치 않을 때는 서너 시간 길 위에서 물건을 줍는다. 이 구역의 칸트가 돌아오기 삼십 분 전, 맥주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옆 동네 원정에서 데려 온 곰돌이 푸 얼굴의 목 베개가 눈에 띄었다. 『수학의 정석』 속 극한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무한 줄음에 갇혀버린 열아홉의 누군가와 첫 배낭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서 곤히 잠든 누군가가 떠올랐다.

하얗고 얇은 게 바람에 나풀거렸다. 저것은 어떤 이의 어떤 구멍을 거쳐 왔을까. 인간의 한때는 결국 버릴 것을 만들고 또 버릴 게 된다. 낡고 해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멀쩡해도 그저 쓰임이 다해 내 손을 떠나게 될 때 쓰레기는 탄생한다. 누구 목에도 채워지지 않는 벡타이와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는 명작소설처럼 구두도 그렇다. 애초에 쥘레로 만들어진 구두는 짝을 이뤄야 온전하다. 하지만 장애 등의 이유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짝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문제는 효용성에 있다. 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것을 신발이라 부른다면 구두는 보자기에 싸여져 장롱에 처박혀 있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발에 신겨져 있어야 했다. 아버지의 구두는 신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으니 이미 오래전에 폐기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었다. 나도 엄마만큼이나 구두가 미웠지만 과거 청산은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체가 있을지도 모를 쓰레기동산에서 구두를 데려와야 했다. 아버지에게 구두를 갖다 줬다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짝짝함이 조금은 덜했을까. 지금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아버지가 등 돌렸던 고향이 광주임을 알게 된 후 젊은 시절의 그가 도청에 있었던더라면, 금남로를 달렸더라면,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니 망상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합격과 불합격의 기로에 서 있는 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노랑진 공시생 중 하나였던 나는 좋은 기회를 날렸다면 한탄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구두에게 32-3번지처럼 사연이 있는 거라면? 그런다 한들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과거일 뿐이었다.

골목 끝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 한 대가 나타났다. 나는 캔을 끌어안고 몸을 잔뜩 움츠렸다. 담에 난 구멍을 통해 쓰레기동산을 훑쳐봤다. 32-3은 스프링 달린 낡은 앨범을 옆구리에 끼고도 능숙하게 정상에 도달했다. 빠른 속도에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의 나이와 관절도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는 모양이었다. 트로피를 어루만지며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있던 32-3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고양이였는지 소리는 곧 흐릿해졌다. 32-3은 대문 너머까지 살피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더니 포복자세를 취했다. 땀물이 흐르는 초록 장막이 걸히자 나타난 입구가 32-3을 삼켰다.

그새 자욱해진 어둠 속에서 나는 폐지처럼 구겼던 몸을 폈다. 32-3이 사라진 곳에 새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제까지 새의 생활을 지탱했으나 오늘은 무용으로 분류되어 버려진 새장은, 그럼에도 가로등의 빛을 머금고 반짝거렸다. 눈앞에서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제거된 것들이 실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어제는 결코 어제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뒤섞인 시간 속에서 나는 알았다. 아버지의 방에 걸린 시계들은 각자의 시간에 멈춰 있고, 작은방엔 열두 살과 열아홉 살의 내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우리의 방은 여기 32-3번지에 있었다.

닥치는 대로 들고 오는 게 아니다. 30\*25\*15 사이즈 히터를 골동품인양 신중하게 따져 보는 태도는 선별이었고, 그것은 곧 수집가의 자세였다. 무거운 리어카는 오늘이 운수 좋은 날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옆 동네에서 돌아오는 길은 오르막이 많아 굽은 허리로 리어카를 끄는 게 만만치 않을 터였다. 32-3이 뒤뚱하자 알루미늄 야구 배트가 떨어졌고 무심한 척 옆을 걷던 나는 두 팔을 벌려 그녀를 감쌌다. 배트는 내 등을 찍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32-3이 덜컥거리는 히터를 잡으며 나를 노려보았다.

“뭐시다냐. 저리 안 가냐.”

“아니, 그게, 무거워 보여서…….”

“……뭣 보던 얼굴인데? 그 짝은 누구다요?”

“여, 옆집 삼니다. 33-3번지요.”

“거가, 아저씨냐 노인네냐 혼자 살았는디?”

“아, 아들입니다.”

32-3은 나를 뚫어지게 보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요거시 다 돈이여.”

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맞장구를 치며 리어카를 끌었다. 쓰레기동산 입구에 도착해 히터를 옮기려는데 32-3이 나를 막아 세웠다. 두고만 갈게요, 하며 나는 안으로 발을 슬쩍 집어넣어 보았지만 등짝만 한 대 맞고 말았다.

“위메, 이놈 봐라. 도적놈이었고고만.”

“오해십니다, 아아,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씩씩 거리던 32-3이 리어카에서 신문 하나를 던졌다.

“요놈 좀 읽어 보소.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근당게, 글을 몰라서가 아니여.”

그러니까 댜 준공으로 인한 수몰지역을 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아 온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다음 주부터 열리고요, 그리고…… 2016년 8월 25일자 신문에서 차로 두어 시간 떨어진 수몰 마을에 관한 기사를 읽는 동안 32-3은 고개를 꾸벅였다. 나는 조심스레 잠든 그녀의 머리를 내 어깨에 놓았다. 저편에서 한 짝의 구두를 품었던 아버지와, 운동화 혹은 구두, 어쩌면 슬리퍼일지도 모를 신발 한 짝으로 돌아왔다는 32-3의 남편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정신없이 날갯짓하는 나방파리를 손을 들어 쫓아냈다. 물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물곰팡이는 다시 피어나고 나방파리도 찾아온다. 그건 앞으로도 락스 때문에 울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후드 짚업을 벗어 잠든 32-3을 덮어주었다.

엄마는 생일 파티라도 하듯 음식을 장만했다. 전날부터 마른 토란대와 고사리와 표고버섯을 물에 불렸고, 그걸로 오리탕과 조기조림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다. 알타리 김치도 담갔는데 맛보라고 입에 넣어준 무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이맘때 알타리는 매운 거라는 엄마의 목소리는 댜댜했었다. 들깨가루를 담백 넣은 오리탕과 고사리가 메인 같던 조기조림,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은 잡채와 설탕물에 담가뉜 매운맛을 뺀 알타리 김치는 잔치 음식이긴 했다. 해방 혹은 탈출을 기념하는 음식들은, 하지만 내겐 이별의 음식들이었다. 몇날며칠을 먹어도 냄비와 반찬통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 먹으면서도 상한 걸 몰랐는데, 쉰 것도 구분을 못하냐며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나서야 엄마가 떠난 것을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사내새끼가 운다며 나를 발로 찼다. 고작 엄마가 없는 걸로 질질 짜냐고 했지만 실은 상한 음식을 먹은 게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었다. 그 후 냉장고는 소주를 위한 곳이 되었다. 가끔 생기는 김치와 콩자반, 멸치볶음은 주인집 눈치를 보며 조심하 놀아야 하는 셋방의 아이들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더 이상 눈치를 봐야할 아버지가 없는 나는 과감하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반년 전부터 병원에 계셨고 장례를 치른 후 반년 동안 집은 비어 있었다. 일년 가까이 봉해져 있었으니 썩거나, 썩은 것과 진배없는 것들이 튀어 나올지 알았으나 내부는 생각보다 멀쩡했다. 새우젓과 매실청



은 그럴다 치고, 초코파이는 조금 딱딱해졌을 뿐이었다. 슬라이스 치즈 역시 바짝 말랐으나 곰팡이는 피지 않았다. 검은 액체로 변한 배를 보니 반갑기까지 했다.

제일 좋아했던 과일을 다 먹지 못하고 아버지는 떠났다.

계란 다섯 개를 버리려다 멈칫했다. 눈이 반쯤 생긴 병아리 아닌 병아리라도 나오면 어쩌지. 계란은 검은 봉투에 넣어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었다. 껍질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아버지가 유정란을 먹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썩덕과 냉동 만두를 봉투에 집어넣었다. 20리터 한 장이면 될 줄 알았지만 몇 번이나 편의점에 다녀와야 했다. 시신, 토막, 유기를 떠올리며 이상하게 여기면 어쩌나. 편의점 알바는 휴대폰 게임에 정신이 팔려 소액 고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나는 20리터 쓰레기봉투 일곱 장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냉장고를 비울 수 있었다.

이게 끝은 아니었다.

“오만 원으로 안 되겠는데요. 존나 무거운데.”

알바는 코를 벌렁거리며 투덜거렸다. 편의점 사장이 최저시급을 지킨다고 해도 대략 8.3배 정도 되는 꿀 알바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노하우 없는 두 청년이 600리터짜리 냉장고를, 게다가 장비도 없이 계단으로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살살 달랬다.

“이제 다섯 계단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마지막으로 32-3번로 냉장고를 넘길 때 그가 열은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소리와 함께 냄새의 강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을 그도 느낀 것이었다. 그에게 약속대로 오만 원을 건넸다. 사십 분쯤 걸렸으니 평소보다 12배가 넘게 인정받은 노동의 가치였다. 구깃구깃한 만 원짜리 다섯 장을 확인하는 알바를 보며 나는 오 분 전에 도착한 문자를 곱씹었다. *실업인정일 11월 21일 (09:30) 광주센터 방문, 근로사실 등 필히 신고.* 내일의 출석으로 통장에는 일주일 치 실업수당 303,912원이 들어오고,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진다. 내가 시간을 쪼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알바는 이따 동네는 빨리 떠야한다며 옥상에서 사라졌다.

버릴 생각이었지 다리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의도와 달리 떨어질 때 대문 상측에 부딪히면서 냉장고문이 열렸고, 덕분에 옥상에서 쓰레기동산으로 건너갈 수도 있을 듯 했다. 나는 냉장고 위를 조심스레 기기 시작했다. 거의 다 지나려는데 선반을 뺀 내부가 너무 따뜻했다. 찬바람에 금속을 만지니 손이 너무 시리기도 했다. 잠깐 몸을 녹여야지, 나는 냉장고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점퍼 주머니에서 걸리적거리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고, 그 안에서 갈색 구두 한 짝을 꺼냈다.

성수동 어느 골목의 오래된 구두가게였다. 사진을 내밀며 오른쪽을 만들어 달라는 내게 아저씨는 세 상사 사연 없는 게 있겠냐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난생 처음 번 돈으로 내복을 사는 대신 맞춘 구두를 나는 아버지에게 드리지 못했다.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쓰레기동산으로 휙 던져버렸고, 대신 그 구두를 신었다.

오른쪽만 있는 구두 역시 약지 반 마디만큼 크다. 양말도 신지 않은 원발이 너무 시려서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아 버렸다.

“추운디, 엄청 추운디 뭐한다냐?”

밤인지 새벽인지 알 수 없는 깊고 또 밝은 어둠이었다. 문을 잡은 채로 32-3, 아니 할머니가, 아니 32-3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침침한 가로등 불빛 때문에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화난 목소리는 아

니었다.

“물곰팡이 닦으러 왔는데요. 나방파리가 제일 좋아해요, 그걸.” 구두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근데, 저 안 쫓아내세요?”

“총각은 이웃 아니에요. 나 거들어 준 거 정확하게 기억하제. 잠깐만 기다려 보소.”

장막 걷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라졌던 32-3, 아니 할머니가 나타났다. 구두 한 짝과 함께였다. 할머니가, 아니 32-3이 내 왼쪽 맨발에 그걸 신겼다. 약지 반 마디만큼 큰 구두는 아버지의 것을 닮았다. 가로등 불빛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할머니가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지는 사이 나는 왼쪽 구두를 벗었다.

잔느 Since 1980.

성수동 구둣가게 아저씨는 이래봐도 장인이라며 똑같이 만들어 보겠지만 라벨만큼은 자신의 것으로 한다고 했다. 기억이 떠오르자 구두가 발에 딱 맞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입 안으로 뭐가 들어왔다. 크림빵이었다. 악취가 가리지 못한 달콤함은 상한 것 같기도, 그냥 크림 맛이기도 했는데 씹을수록 불안마저 오묘하게 변했다. 어쩐지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